

2020년 11월 03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대선 앞두고 대형 기술주 매물 출회

대형 기술주 하락 Vs. 금융주, 산업재, 에너지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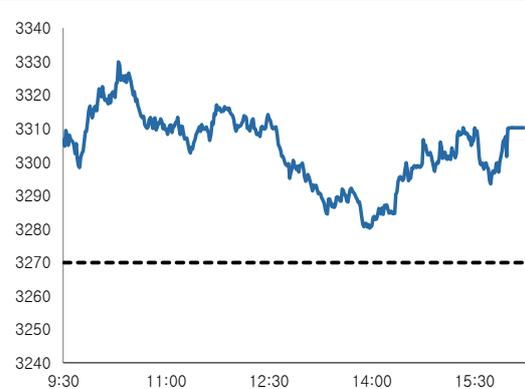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2016년 or 2000년

미 증시는 지난 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및 경제지표 호전을 기반으로 상승 출발.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후보의 당선 기대가 높아지자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 반면, 독점금지법 등 규제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형 기술주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차별화가 뚜렷. 한편, 미 정치 불확실성 우려 속 시간이 지나며 매물이 출회 되는 등 변동성 확대(다우 +1.60%, 나스닥 +0.42%, S&P500 +1.23%, 러셀 2000 +1.83%)

미 증시는 지난 2016년 미 대선 전일 흐름과 비슷한 양상. 당시(16.11/08) 미 증시는 대선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혼조세로 출발했으나, CNN 이 “힐러리의 당선 확률이 78%에서 91%로 높아졌다” 라고 보도하자 상승 전환에 성공. 이는 시장이 힐러리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 증시는 5~7% 상승을,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5~10%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특히 ‘블루웨이브’가 현실화 될 경우 규제 강화 우려가 있던 금융주가 하락하기도 하는 등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 오늘 미 증시 또한 바이든 승리 가능성이 64%, 트럼프 승리 가능성은 36%로 전망되자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 시장은 ‘블루웨이브’가 현실화 될 경우 대선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지수가 5%내외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 대형 기술주는 부진했는데 ‘독점 금지법’ 등 규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

한편, 2016년 당시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며 아시아 시장은 패닉.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 수락 연설에서 “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도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다가 서겠다”라고 언급하자 유럽과 미 증시는 안정. 특히 규제 완화 기대감에 금융주 및 제약 바이오주가 상승 주도. 그러나 이번에는 6 천만명이 넘는 대규모 우편 투표로 인해 대선 결과 발표가 지연 될 수 있어 정치 불확실성은 장기화 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16년 보다는 2000년 대선 이후 흐름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당시 고어 후보의 불복 선언으로 4 거래일 만에 나스닥이 13.2%, S&P500 이 5.6% 하락 했었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시간이 지나며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을 보임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300.16	+1.46	홍콩항셱	24,460.01	+1.46
KOSDAQ	802.95	+1.30	영국	5,654.97	+1.39
DOW	26,925.05	+1.60	독일	11,788.28	+2.01
NASDAQ	10,957.61	+0.42	프랑스	4,691.14	+2.11
S&P 500	3,310.24	+1.23	스페인	6,585.60	+2.07
상하이종합	3,225.12	+0.02	그리스	572.88	+0.59
일본	23,295.48	+1.39	이탈리아	18,400.03	+2.5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기술주 부진 Vs. 금융, 산업재 강세

미 대선 하루 앞두고 바이든 후보 당선 가능성이 여전히 높자 JP모건(+2.25%), BOA(+1.60%) 등 금융주와 캐터필라(+3.96%), 허니웰(+5.25%) 등 산업재, 엑손모빌(+4.20%), 세브론(+3.81%) 등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넥스트라 에너지(+2.62%), 설파워(+5.35%), 진코솔라(+7.67%) 등 친환경 에너지 업종등이 상승했다. 중국 전기차 업체인 니오(+8.96%)는 10월에 대규모 판매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했다. 테슬라(+3.21%)도 동반 상승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페이팔(+0.88%)은 실적 발표 후 시간 외로 강보합권을 보이고 있으며 스카이웍(+0.59%)도 견고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로 2% 내외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애플(-0.08%)은 11월 10일 자체 칩을 기반으로 한 맥 컴퓨터를 공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영향이 제한된 가운데 규제 강화 우려 속 하락했다. 지난 목요일 활성 사용자 둔화 우려를 언급하며 급락했던 트위터(-4.57%)는 오늘도 매물 출회되며 하락 했으며 페이스북(-0.67%)도 여전히 낙폭을 키웠다. 더불어 아마존(-1.04%), MS(-0.07%), 알파벳(+0.51%) 등 여타 대형 기술주도 바이든 당선 시 독점 금지법 강화 우려 속 매물 출회되며 하락하거나 보합권 등락에 그쳤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87%	대형 가치주 ETF(IVE)	+1.97%
에너지섹터 ETF(OIH)	+5.61%	중형 가치주 ETF(IWS)	+2.44%
소매업체 ETF(XRT)	+1.67%	소형 가치주 ETF(IWN)	+2.43%
금융섹터 ETF(XLF)	+1.89%	대형 성장주 ETF(VUG)	+0.35%
기술섹터 ETF(XLK)	+0.25%	중형 성장주 ETF(IWP)	+0.70%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33%	소형 성장주 ETF(IWO)	+1.39%
인터넷업체 ETF(FDN)	-0.35%	배당주 ETF(DVY)	+2.48%
리츠업체 ETF(XLRE)	+2.46%	신중국 고배당 ETF(DEM)	+1.47%
주택건설업체 ETF(XHB)	+3.50%	신중국 저변동성 ETF(EEMV)	+1.04%
바이오섹터 ETF(IBB)	-0.18%	미국 국채 ETF(IEF)	+0.17%
헬스케어 ETF(XLVB)	+1.80%	하이일드 ETF(JNK)	+0.25%
곡물 ETF(DBA)	+0.07%	물가연동채 ETF(TIP)	+0.37%
반도체 ETF(SMH)	+0.78%	Long/short ETF(BTAL)	-1.09%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24.77	+3.67%	+1.25%	-1.87%
소재	410.34	+3.39%	+1.46%	+1.24%
산업재	658.54	+2.73%	-1.50%	-1.20%
경기소비재	1,175.56	+0.30%	-4.58%	-4.62%
필수소비재	649.88	+1.63%	-1.99%	-2.06%
헬스케어	1,205.91	+1.82%	-2.91%	-2.71%
금융	403.78	+1.94%	-1.54%	-1.62%
IT	1,955.34	+0.34%	-4.07%	-5.41%
커뮤니케이션	196.72	+0.09%	-1.63%	-0.33%
유틸리티	323.99	+2.23%	-1.50%	+3.74%
부동산	216.82	+2.53%	-0.59%	-4.5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관망세 짙은 가운데 매물 출회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 는 1.73% MSCI 신흥 지수 ETF 는 1.27% 상승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33.9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유럽의 경제 봉쇄 확대와 미국 대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 이주열 한국 은행 총재가 미 대선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양호한 수출입 통계 및 견고한 중국의 제조업 지표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양호한 결과를 내놓은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미 증시에서 규제 강화 우려가 높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며 나스닥이 부진한 점, 미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상승 출발이 예상되나 매물 출회되며 미 대선 이슈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완화 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2 억 4 천만명의 유권자 중 사전 투표가 9,400 만 명을 기록했고, 우편 투표가 6 천만명을 넘어섰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11 월 3 일 대선 종료 후 개표가 완료되는 시기가 과거와 달리 크게 지연될 수 있어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전 투표자 중 민주당 지지층이 45%, 공화당 지지층이 30%라는 여론 조사 결과를 토대로 11 월 3 일 당일 현장 투표자들은 공화당 지지층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편 투표 개표 이전 트럼프의 우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토대로 승리 선언을 할 수 있어 부담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오늘 한국 증시는 시간이 지나며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ISM 제조업 지표 개선

미국 10 월 ISM 제조업지수는 전월(55.4)나 예상(55.7)을 상회한 59.3 으로 발표되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신규 주문이 60.2 에서 67.9 로 고용지수가 49.6 에서 53.2 로 재고지수도 47.1 에서 51.9로 상승하는 등 대부분이 개선 되었다.

미국 9 월 건설지출은 전월 발표(mom +1.4%)은 물론 예상(mom +0.9%)를 하회한 전월 대비 0.3% 증가에 그쳤으며 전년 대비로도 1.5% 증가에 그쳤다. 한편, 민간 건설 지출은 전월 대비 0.9% 증가했는데 거주용 건설이 2.8%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설비투자과 관련이 큰 비거주용 건설지출은 전월 대비 1.5% 감소 했고, 공공부문 건설지출 또한 1.7% 감소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감산 기간 연장 기대로 상승 전환 성공

국제유가는 시간 외로 주말에 발표된 영국의 전국 봉쇄 등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지표가 개선되고, 대선 이후 대규모 부양책을 펼칠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자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더불어 러시아 에너지 장관이 원유 감산을 2021년 1분기까지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대선 불확실성으로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이 전국 봉쇄를 발표하자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고, 전국 봉쇄를 발표 했던 프랑스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여전히 5만명을 상회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자 유로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 점도 달러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국채금리는 일주일 평균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8만명을 넘어서는 등 우려가 확산되자 장기물 중심으로 하락했다. 더불어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 또한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경제지표가 호전세를 보이고 미 대선 이후 부양책 확대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 낙폭은 제한된 가운데 보험권 등락을 보였다.

금은 달러 강세 불구하고 코로나 이슈 및 미 대선 불확실성 우려로 0.7%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불구하고 바이든 승리에 대한 기대 속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69%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bp)
WTI	36.81	+2.85	-4.54	Dollar Index	94.056	+0.02	+1.09
브렌트유	38.97	+2.71	-4.51	EUR/USD	1.164	-0.06	-1.44
금	1,892.50	+0.67	-0.69	USD/JPY	104.76	+0.10	-0.08
은	24.033	+1.64	-1.58	GBP/USD	1.2920	-0.21	-0.80
알루미늄	1,866.00	+0.95	+2.11	USD/CHF	0.9192	+0.24	+1.26
전기동	6,762.00	+0.65	-0.28	AUD/USD	0.7055	+0.38	-0.95
아연	2,540.50	+0.69	+0.04	USD/CAD	1.3232	-0.67	+0.15
옥수수	397.50	-0.25	-4.85	USD/BRL	5.7451	-0.63	+2.24
밀	607.50	+1.50	-2.02	USD/CNH	6.6879	-0.13	-0.19
대두	1,052.25	-0.38	-2.88	USD/KRW	1133.60	-0.13	+0.52
커피	102.80	-1.53	-3.61	USD/KRW NDF1M	1133.95	-0.24	+0.1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845	-2.86	+4.41	스페인	0.119	-1.40	-6.50
한국	1.605	+5.30	+12.00	포르투갈	0.091	-1.10	-6.60
일본	0.045	+0.30	+1.00	그리스	0.920	-0.80	+0.50
독일	-0.640	-1.30	-6.00	이탈리아	0.746	-1.20	+0.9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